

스토리 와 모먼트 의 오마카세

Young.May

EP.02 2025.05

〈증미역 이야기 맛집〉



꽃처럼 피어난 우리의 5월
함께 할 우리들의 꽃길 !!

"늘 건강하고, 언제나 행복하길!!"



"많이 웃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게요"



어느 산사에서 만난 마음들.
간절함을 담은 글귀가
봄바람에 살랑살랑 나부깁니다.
“많이 사랑하게, 서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많이 웃으며...”
평소에 무심히 서랍 안에
넣어뒀던 우리의 마음이
봄바람에 깨어나 싹을 틔웁니다.
5월, 영림인들의 마음 온도도 더
높아졌습니다.



"서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건강하게 원하는 삶"



"모두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게 지켜주세요"

MENU

가장 신선한 제철 재료로
그때그때 요리합니다~~



Young Hero

Young Moment



응원해요 영림원!

Young Idol



Young Story

Young Shot



데이터로 보는
영림원

라떼 한잔



증미역 찐맛집을
가다



With CEO



Young Story

 75개 엽서에 화답한 우리들

영림인들의 특별했던 어린이날

꼭꼭 눌러 쓴 설레임

4월의 어느 날, 영림원소프트랩 사내 카페 입구에 75개의 엽서가 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엽서에는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인라인을 타고 신나게 달리고 싶어요."
"직접 드론을 날려보고 싶어요."
"예쁜 크룩스 신고 놀러 다닐 거예요."

영림원 임직원들은 보육원 두 곳에서 온 아이들의 사연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 그들의 사연을 눈 여겨 보며 마음 가는 엽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게 짚은 사연의 선물을 직접 주문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포장지에 아이의 이름과 함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쓰며, 한달 내내 '산타클로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 한 켠에 쌓인 선물 상자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 희망,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해줬다"는 따뜻한 기억이 되길 바랐습니다.

드론은 잘 날고 있을까

김은재님을 비롯한 대외협력실 직원들은 5월초, 75개의 포근한 마음을 싣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물은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들어준 이름 모를 이의 마음이 전해졌겠지요?

가정의 달인 5월, 우리 모두는 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엽서 한 장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마음은 다시 누군가의 어린 시절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함께합니다. 작은 정성을 담아서 다른 이를 보살피는 일이 결국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모아 우리 사회의 온기를 조금 더 올리는 일, 영림인들의 특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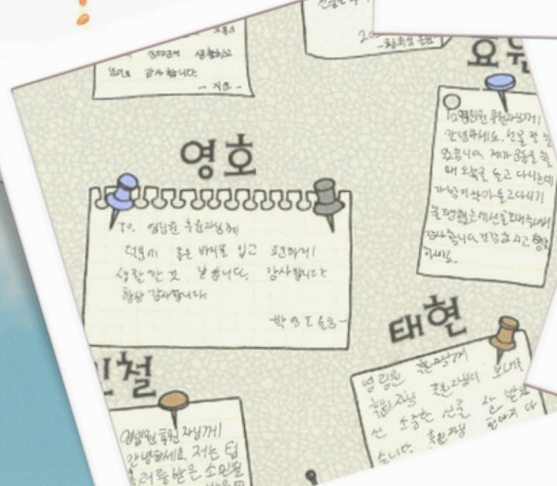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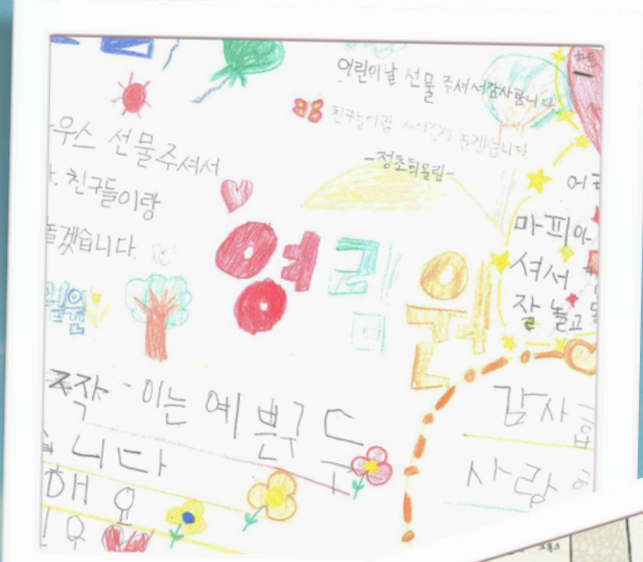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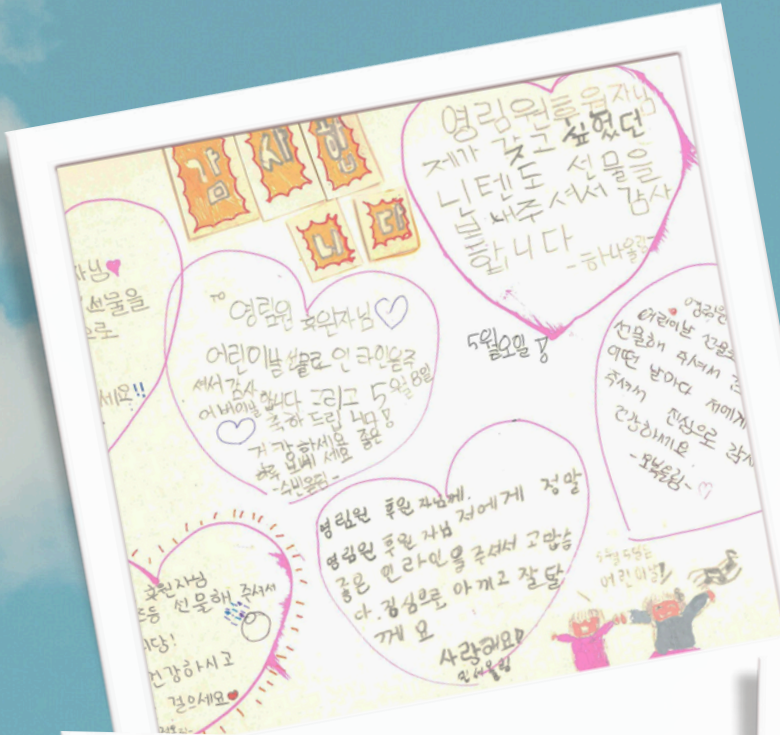
고마워요 영리원~



"피카마우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게요!" "반짝이는 예쁜 구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가지고 싶었던 RC카를 주셔서 너무 기뻐요. 동생이랑 함께 재미있게 놀게요."

선물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진심 어린 글귀 하나하나에는 순수한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또 만나요 ^^😊





“제게 영림원은 청춘, 그 자체죠”

‘영림원 최고 마당발이자 영원한 선배’ 이재경님

“가끔 일도 없는데 일요일에 회사에 나와 봐요. 혹시 별 문제는 없냐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인데, 속으로 ‘나도 참 못간다’고 생각하죠.”

영림원소프트랩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얼굴을 기억하고, 마음 한구석 따뜻함으로 간직한 이름이 있다. 바로 이재경님이다. 사내 애경사는 물론, 후배들의 사소한 고민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준 ‘진짜 선배’,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빼놓지 않고 밥을 사주는 선배.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용히 회사를 떠난다. 마지막 소임은 ‘AI 경영분석’ 솔루션이었다.

이재경님은 본인의 인생에서 영림원이 갖는 의미를 묻자 “청춘 그 자체”라고 말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영림원은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지 아니었다.

영업, 연구개발, 클라우드, AI까지

그는 ‘혁신’과 ‘고객’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 1962년생인 그는 인하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지만 건설사를 다니던 중 절친의 영향으로 IT로 진로를 바꿨다. 1998~2000년 중앙대 대학원을 다니며 전산학 석사도 땀다. 그때 의미 있게 접한 AI는 이후 인생에서 중요한 화두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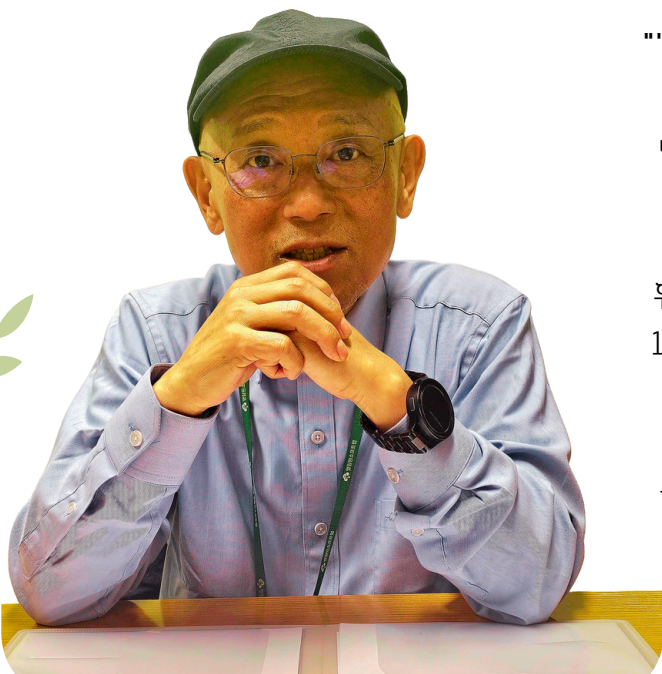
IT업계에서 ERP 패키지 태동기를 함께 열어가다 2006년 영림원으로 적을 옮겨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클라우드사업 책임자, 컨설팅사업부 리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특히, 쿠첸 프로젝트는 그에게 가장 힘들면서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제뉴인’ ERP 패키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10억대로, 당시 최대 규모였어요. 컨설턴트, 개발자 등 총 10명으로 팀을 꾸려 천안에서 15개월간 동고동락했는데 프로젝트 PM 역할을 했죠.”

“동료 10명이 한솔밥’ 쿠첸 프로젝트 가장 기억나요”

당시 본사에는 제뉴인 안정화를 위한 ‘워룸’이 꾸려져 권영범님이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

이재경님은 서슬 퍼런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고객사 근처 숙소에서 매일 아침 7시 기상해 10명을 깨우고 하루종일 뛰어다녔다. 고객사 책임자와 매일 싸우다시피 하며 다행이 큰 무리 없이 프로젝트를 끝냈다.

그는 “그 시절이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의미 있었다”고 말한다.



컨설팅사업부 중 한 곳을 이끌며 동방아그로, 포스코경영연구소 등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한 그는 2011년 영림원을 떠났다가 2013년 재입사했다. 영림원 파트너로 사업을 펼쳤지만 어려움이 많았던 그는 친정인 영림원에 손을 내밀었다.

"돌아와서는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둔 코스텔 프로젝트를 했는데 고객사 사장님과 매일 아침 미팅을 했어요.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되니 고객 만족도도 높았죠."

"프로젝트 가면 생산 반장, 창고 책임자들을 열심히 챙겼죠"

이재경님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생산현장과 창고를 담당하는 반장, 조장들과 친분을 쌓는 일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두세번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 참을성 있게 알려드리죠. 그래야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들이 오류를 내면 문제가 된 숫자를 찾아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나흘 밤새며 찾아야 하는 원인이 그들에게서 잘 생기죠. 이재경이 잘 해준다고 그들이 고객사 대표에게 보고하면 고객사 대표도 직원 교육을 잘해준다고 친절하게 해주죠."

"60세 넘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격증 따 KBS 뉴스 나오기도 했죠"

이후 ERP 외곽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했다. 경영분석, 데이터 분석, AI를 깊이 파고들었다. "직무에 따라 직원들을 개별 면담하며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따게 하고, 책도 사주고, AI 전도사 노릇을 했죠."

생성형 AI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격증을 2개나 취득했는데 지난 3월에는 60세 넘어 자격증을 딴 스토리가 KBS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최근 업무는 'AI 경영분석' 패키지로, 영림원 안에 AI의 가치를 심고자 했다.

"늘 배움을 놓지 않는 영림원 문화, 권영범님의 철학이 좋았어요"

그에게 영림원은 단지 직장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였다. "권영범님의 철학에 따라 바르게, 정직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온 영림원이 좋았고, 나도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가장 뿌듯했던 일은 클라우드 SaaS 모델을 맨 바닥에서 기획하고 상품화한 후 전국 세미나를 돌며 파트너 생태계를 만든 경험이었다. "비록 성과가 기대만큼 크진 않았지만,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죠."

향후 계획을 묻자 "치료가 우선"이라며, "몸이 허락한다면 데이터 분석과 AI 공부를 계속하면서 후배들의 '숨은 고수'로 살고 싶다"고 했다.

"영림원이 그동안 지켜온 ERP 한 길을 계속 걸으며 전문업체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물론 AI가 모든 SW에 장착돼야 하니 AI를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일도 중요하죠. 고객이 AI 시대에도 경쟁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영림원이 AI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림원의 미래,
새내기들의
일상을 들여봅니다.



길지 않지만 ERP 한 분야를 파고들어 온 그녀. 작년 9월, ERP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림원에 입사한 김다은님은 현재 BPO플랫폼사업팀에서 근태관리 솔루션 '에버타임' 컨설턴트로 지내고 있습니다. 입사 후 경험과 변화, 그녀의 생각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림원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김다은님은 이전에도 ERP 회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 성장의 한계가 느껴졌다고 해요. 더 다양한 산업군과 복잡한 시스템을 경험하고 싶어 이직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영림원은 다양한 고객군을 상대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BPO플랫폼사업팀 김다은님

* 보람은 시스템 개선 순간에

연차는 길지 않지만 솔루션에 대한 '진심'은 여느 베테랑 못지 않습니다. 특히 근태 시스템은 사용자 입장에서 단순히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다양한 근무 형태, 법적 기준, 고객사의 정책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복잡하지만 그만큼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껴요.”

TIME to
STUDY

* "수평적 문화, 처음엔 낯설었죠"

입사 후 가장 먼저 마주한 변화는 '수평적 조직 문화'였다고 해요. '님' 호칭을 포함해 연차에 상관없이 의견을 나누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처음엔 혼란스럽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 일을 내가 결정해도 되나? 어느 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그런 판단이 애매했어요.”

특히 반복되는 회의와 의사결정의 애매함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챙김과 배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해요.

“뭔가를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챙겨주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 "성장하라고 끌어주는 회사 정말 좋아요"

김다은님은 자격증 수당 지급, 헬스장 지원 등 회사의 성장지원 제도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개발자 교육에 비해 컨설턴트 교육은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컨설턴트는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며 혁신을 이끌어야 하니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도 다양한 분야와 흐름을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장 욕심이 많은 김다은님. 그의 다음 걸음도 응원합니다.



WHY?



"라이트 형제를 승자로 만든 한 가지는?"

영림원과 고객이 함께 경영의 지혜를 나누고 성장하는 시간.
5월 8일 열린 205회 CEO포럼의 키워드는 '경영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기업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보루는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저자 사이먼 사이넵은 'Why'를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 단계를 'Why'에서 시작해 How, 이어 What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y가 정립되면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How, 이어 무엇을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What의 단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Why를 잊어버리는 순간, 기업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유명 과학자를 이긴 자전거 가게 주인

영림원소프트랩의 5월 CEO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운희 조선비즈 부장은 기업이 마지막까지 매달려야 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Why'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이넵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서 소개한 사무엘 랭글리 박사와 라이트 형제 이야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랭글리 박사와 라이트 형제는 1900년 전후 누가 비행기를 먼저 개발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랭글리 박사는 유명 과학자였다 미 정부로부터 거액의 연구 지원까지 받은 인물이었지만 라이트 형제에게 승리의 영광을 내주며 결국은 패자로 남았습니다.

당시 비행기 개발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던 사람은 랭글리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부터 연구자금까지 다 갖춘 그를 제치고, 시골에서 자전거 가게를 하던 라이트 형제가 역사 속에서 비행기를 만든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이넵은 그 이유에 대해 "랭글리의 Why보다 라이트 형제의 Why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Why 위에 정반합 방향 세워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전부 다 뚜렷한 Why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운희 부장은 확고한 Why 위에 기본에 충실한 기업이 될 지, 참신한 생각으로 블루오션을 만들 지, 두가지 전략을 적절히 병행할지, 즉 정반합 중 어떤 색깔의 기업이 될 지를 정하고 최적의 전략을 구사해야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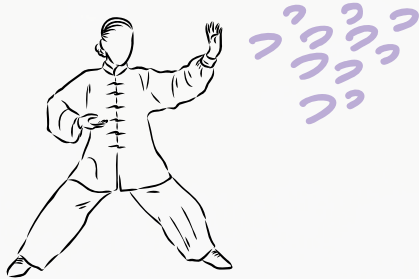
우리의 삶과 일도 같은 이치 아닐까요?



흰 도복의 전설을 아시나요?

“월악산에서 단체로 흰 도복 입고 태극권을 하는데 말이야.”
 “역삼동 건물 옥상에서 그랬었지.” “옛날엔 훨씬 만만치 않았어. 정말이야.” 영림원에는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억 속 ‘라떼 이야기’를 발굴해서 배달합니다.

"태극권, 영림원 생활 3대 위기"



영림원의 품질 파수꾼인 배모모님이 들려준 실화.
 “제가 운동신경이 영 안 좋아서... 전 직원이 정해진 태극권 18장까지 의무적으로 따라 하는데 그걸 못해서 가장 마지막에 가파스로 통과했잖아요. 태극권 못 해서 회사 나가는 줄ㅠㅠ. 그나마 안돼 보여서 사범님이 봐 주신 것 같아요.”
 영림원은 2007년 서울 역삼동 본사 근처에 직원 식당을 마련하면서 태극권 수련장도 함께 열었습니다.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수련에 참여하고, 18장까지 따도록 했죠. 밤낮으로 일하느라 건강을 신경 쓰기 힘든 직원들을 위한 권영범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참, 배모모님은 태극권을 영림원 생활 3대 시련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2007년 그때 그 시절.
 뒤통수가 어디선가 본 듯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태극권 열공"

약 20년 전 입사한 컨설팅의 귀재 정보모님. 입사 후 일정 기간 안에 태극권 18장을 따야 해서 마음이 급했다고 하네요. 컨설턴트들은 매일매일 고객사로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태극권 미션은 전 직원에게 예외가 없었죠. 현장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태극권 연습이 힘들다고 하자, 회사에서 연습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네요.
 정보모님은 지방 고객사를 만나러 오가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우고 태극권 동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체육 특기로 입사한 분들이 있다고?"

ERP와 IT뿐 아니라 운동과 독서, 학습을 통해 팔방미인 능력자로 성장해온 영림인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초능력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태극권이면 태극권,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등 모든 운동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남녀 각각 1인이 있는데, 이분들은 워낙 신출귀몰한 실력을 갖추다 보니 사내에서는 체육 특기로 영림원에 입사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네요. 모든 운동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는 '태릉인' 여성 임원인 홍모모님, 축구 실력이 엄청나서 권영범님도 한팀이 되고 싶어했던 PMS사업부 김모모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증미역 찌맛집’을 가다



“여기 계란장조림 맛집이네요”

인심 좋은 집엔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맛과 풍경으로 소문난 영림원의 직원식당을 찾은 이들은 영림원의 팬이 됩니다. 증미역 찌맛집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은 27년간 국내 위치정보시스템 산업을 지켜온 뼈대 있는 기업입니다. 5월 15일 영림원 직원식당에서 만난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님. 이날 점심 메뉴는 잡곡밥과 해물콩나물찜, 계란장조림, 버섯들깨탕, 모듬채소샐러드, 꽃맛살샐러드, 갯김치, 방울토마토였습니다.



평소 체중조절을 하는 김 대표님은 샐러드를 한가득 담고 해물콩나물찜도 양껏 찢었습니다. 양 조절을 하되 미식가인 김 대표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샐러드가 많아서 좋아요.” “여기 계란장조림 맛집이네요.” “음식에서 권영범 대표님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음식만큼 뷰도 맛집^^

샐러드 맛집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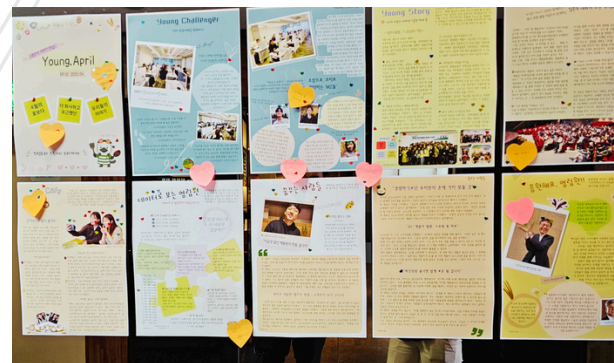
접시를 비운 김 대표님은 초록초록한 창밖 풍경도 살폈습니다. “여기 뷰 맛집이네요.” 엄마 밥 같은 식사 후 클라우드카페의 한강 뷰와 분위기에 취하고 과일 알갱이가 살아있는 자몽에이드까지 마신 김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문화 맛집의 주인이 돼야 겠어요”라며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김인현 대표님의 셀카



그러곤 갑자기 앱을 열어 주식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주주예요.” 스스로를 “핵인싸”라고 부르며 공부, 운동, 집필, SNS 활동까지 열심인 김 대표님은 자신의 SNS에 올릴 사진을 부지런히 찍으셨습니다. “이런 회사는 널리 알려야죠.”



분위기 맛집
‘영림원 클라우드카페’

카페 앞을 장식한 영림원 문화소식지
‘Young April’

“영림인들의 최애 AI 툴은?”

영림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쓰는 AI 도구는 무엇일까요? 익명으로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에버레스크' 앱에 모인 결과입니다.

영림인들의 Pick! AI 도구 Top3 (압도적 1위의 위업!!)

- 1

챗GPT
(94.64%)

무려 95% 가까운 압도적 선택을 받으며 명실상부 AI 도구의 대표 주자임을 입증!! 문서 작성, 요약, 아이디어 생성 등 다양한 업무에 팔방미인~~
- 2

퍼플렉시티
(28.57%)

빠르고 정확한 정보 검색과 분석에 탁월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 실시간 정보나 트렌드 조사에 강하니, 영림인들의 스마트한 검색 비서 역할!!
- 3

MS 코파일럿
(21.96%)

M365의 다양한 툴과 연계돼 문서 작업, 이메일, 스프레드시트까지 자동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에서 활용 가능하니 일잘러들의 필수템!!

영림인들의 숨은 또다른 AI 무기

- 클로바노트
(21.67%)

회의 요약 정리 및 재가공이 특기. 회의 내용들을 요약해주니, 회의록 작성 스트레스가 훨~~
- 제미나이
(20%)

멀티모달의 강자로, 유튜브나 특정 사이트 요약에 강하고, 구글 사용 시 멀티태스킹에 최강.
- 클로드
(16.67%)

긴 문서 요약과 체계적인 문서 작성에 강점. 인간적인 대화와 빠른 응답이 특징.
- 노션AI
(8.33%)

노션 사용자에게 필수템! 다양한 프로젝트와 문서 요약 및 작성에 활용.
- 커서 AI
(8.33%)

코딩 보조 기능. 프로젝트 내 파일 간 연관성 분석과 코드 리뷰에 강점.
- 노트북LM
(5%)

문서 분석과 지식 생성에 특화. 연구 및 노트 작성.
- 깃허브 코파일럿
(5%)

개발자용 코드 추천 도구로, 코드 자동 완성 및 추천 기능 제공.
-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
(3.33%)

구글이 개발한 코딩 도우미. 코딩 오류 수정 및 보완이 특기.

영림인들의 AI 일상!!

“더 이상 문서랑 싸우지 않아요”
챗GPT와 코파일럿으로 문서 작업은 스피디하게!
“검색은 퍼플렉시티, 설명은 챗GPT에게”
“AI는 도구가 아니라 팀원이다!”
이젠 도구를 넘어서 협업자 포지션으로 진입 중~~

순위	AI 도구	응답	비중
1	챗GPT	57표	95%
2	퍼플렉시티	18표	30%
3	MS 코파일럿	15표	25%
4	클로바노트	13표	21.67%
5	제미나이	12표	20%
6	클로드	10표	16.67%
7	커서 AI	5표	8.33%
8	노션AI	5표	8.33%
9	깃허브 코파일럿	3표	5%
10	노트북LM	3표	5%
11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	2표	3.33%
총계		60표	100%

*전직원 중 설문응답자 기준 (2025년 5월)

응원해요, 영림원!!

영림원을 아끼고 응원하는
'Y치어러즈(Y-Cheerers)'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임소형 한국일보 미래기술탐사부장

"손 모양을 이렇게 하라고요?"

영림원을 응원하는 마음을 한가득
보여준 임소형 한국일보 미래기술
탐사부장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과
학기자 중 한명입니다.

평소 성격은 털털하지만 취재할 땐
매서운 질문의 소유자이지요^^

“영림원소프트랩이 시도하는 콘텐츠와 기업문
화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사내 다양한
소식을 콘텐츠로 만들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시도는 앞으로 있을 많은 변화의 예고편일 거
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개발은, 무심히 지
나칠 수 있는 대화에서 흥미로운 스토리를 뽑
아내고, 매일 쏟아지는 업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경험담에서 보석같은 아이디어를 찾아
내는 과정입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은 콘텐츠들이 영림원 구성원들을
끈끈하게 묶어주고 성장시킬 소중한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영림원의 기업문화 활동이
많은 국내 기업들에도 전파되길 응원합니다.

유승삼 ICTK홀딩스 부
회장님은 한국HP를 거
쳐 한국MS 초대 지사장
을 지낸 국내 IT업계 산
증인입니다. 여전히 꿈꾸
며 배우고 계시지요.

“MRP2에 이어 국내 ERP 분야를 이끌어온
영림원소프트랩은 같은 IT업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 매우 친숙한 기업입니다. 권영범 대표님
과는 오래 전 권 대표님의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지요. 저 역시 1980년대 삼성전자
의 MRP 도입을 도우면서 MRP와 ERP 분
야가 익숙하지요.

영림원이 기업문화를 사업화하고 확산하는 시
도도 하고 있다니 신선하고 기대가 되네요.

기업문화와 ERP 분야에서 시도하는 것들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하고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유승삼 ICTK홀딩스 부회장

“권영범님은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변수 많은 비즈니스 현장을 이끌면서도 사람과
조직문화를 고민하며 세상에 없던,
영리원만의 해법을 구상하는 권영범님.
그의 일상은 어떻게 짜임새 있게 흘러 갈까요?
그의 아침 루틴을 들어 봤습니다.

“굿모닝~.”

아침 8시가 약간 지난 시간. 익숙한 목소리의 아침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권영범님의 생기 있는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때까지 권영범님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Q. 권영범님의 아침 루틴이 궁금합니다.

A. “주말이든 평일이든 5시 30분에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죠. 일어나선 씻은 후 신문을 보면서 주스를 마셔요. 그러곤 6시 40분쯤 집을 나서죠.”

Q. 회사에 일찍 도착하시겠네요. 아침 시간엔 뭘 하시나요?

A. “국선도를 하죠. 영리원을 세우기 전에 시작한 국선도를 한 기간도 이제 영리원의 나이 만큼 됐네요. 32년이 넘었어요.”

Q. 아, 국선도 하고 나서 주량이 늘었다고 하셨던 게 기억 나네요. 국선도는 주로 호흡과 명상인 건가요? 하면 좋은 점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A. “국선도를 시작하고 나서 몇달 되지 않아 주량이 2배로 늘었죠. 국선도는 스트레칭이 절반 정도 되고 호흡과 명상을 하는데 어디에 좋은 지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인 거 같아요.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데,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지 몰라요.”



권영범 영리원소프트랩 대표



Q. 그럼, 권영범님은 생각을 비울 수 있는 경지가 되신 건가요? 호흡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A. “매일 그런 건 아닌데, 30분 정도 호흡을 하면서 절반 정도 시간은 생각을 비울 수 있죠. 호흡은 복식호흡을 하는데, 1분에 한 호흡을 해요.”

Q. 1분에 한 호흡이요? 숨차지 않으신가요?

A.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호흡도 훨씬 느려지는 거죠. 국선도를 시작하고 나서 3년 후 1분에 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됐지요. 가끔 1분 20초에 한 호흡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숨이 좀 거칠어져요. 몸에 긴장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Q.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여행지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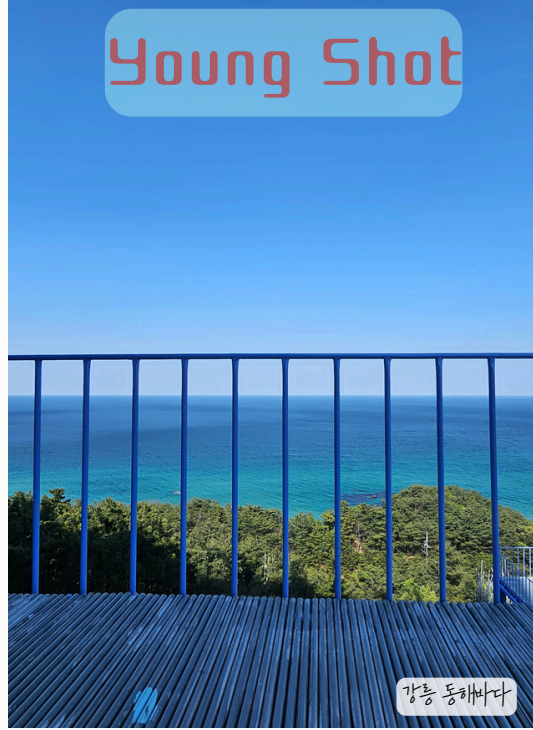
A. “짧게라도 해야지요. 매트 챙겨서 갈 겁니다.”

뭐든 한번 시작하면 30년은 기본인 권영범님. 무엇보다 1분에 한번 호흡이라니 놀랍네요. 다음달엔 또 뭘로 놀랄지 기대됩니다. 함께 기대해 보시죠.





삼척 장포항



강릉 동해바다



대관령 안반데기



평창군 발왕산

가끔은
용기 있게
떠나 보요!!



치악산 구룡사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강릉 경포호



어느 담벼락에서 만난 야옹이

5월을 보내며



익숙한 것이 주는 편안함과 낯선 것이 주는 설렘이 교차되는 날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계신가요? 6월에는 더욱더 새로운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실 안경애 naturean@



봄은 특히 제철 식재료들이 풍성해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제철에 나는 식재료는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하죠. 콘텐츠실도 제철음식처럼, 매달 신선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림원 가족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콘텐츠실 박정미 jmpark2303@



벌써 우리가 함께 만든 두 번째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 소식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반갑고 든든합니다. Young 시리즈가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 웃고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길 바라며, 다가올 6월엔 더 재미있는 소식, 더 좋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

/ 콘텐츠실 최보인 bichoi@



5월, 일은 많고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는 걸까요? 그 와중에도 영림원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읽다가 "어? 이런 일도 있었어?" 하셨다면 이번 달도 저희의 작은 미션은 성공! 다음 달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 콘텐츠실 조예솔 yscho@

바람도 느끼고
길도 만나고
짙어진 산도 느끼고.
다가오는 주말엔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참, 명구리란 이름 지어주셔서 고맙워요~~
마음에 쏙 드네요^^

© 2025 Young.May

기획·발행 | 영림원소프트랩 콘텐츠실

모든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www.ksystem.co.kr

